



## 창업-폐업의 '악순환' 광주 커피전문점 위기

광주지역 커피전문점이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자영업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커피전문점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인건비 상승, 저가 커피 경쟁 등 복합적 영향이 맞물려 폐업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광주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2천750명으로 2020년 4월 1천776명에 비해 974명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커피전문점 창업자가 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2020년 4월~2024년 4월) 자치구 별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동구 222명→435명(48%↑) ▲서구 325명→542명(66%↑) ▲남구 228명→353명(54%↑) ▲북구 538명→785명(45%↑) ▲광산구 333명→635명(61%↑) 등 5개 구 모두 증가세가 뚜렷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집계 결과, 2020년~2023년 4년 간 새롭게 문을 연 커피음료점 매장 수는 ▲동구 359개 ▲서구 254개 ▲남구 450개 ▲북구 376개 ▲광산구 860개 등 총 2천299개에 달한다. 문제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별한 기술 없이도 창업할 수 있어 창업이 용이하지만 '세 살 짜리 먹거리'식 경쟁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20년~202

4월 기준커피음료사업자2천750명...4년새50%↑

신규 2천299개 vs 폐업 1천623개 '출혈 경쟁' 지속

원자재·인건비↑ '직격탄'...대표 자영업종 빨간불

3년 폐업한 커피음료점 매장 수는 ▲동구 354개 ▲서구 226개 ▲남구 308개 ▲북구 151개 ▲

광산구 589개 등 총 1천623개다. 특히 올해 1~6월 신규 업체와 폐업 업체 수는 각각 ▲동구 71개·60개 ▲서구 33개·29개 ▲남구 61개·29개 ▲북구 28개·39개 ▲광산구 87개·100개다. 북구와 광산구에서는 상반기 새로 문을 연 매장보다 문을 닫는 매장이 더 많았다.

게다가 최근엔 고물가·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여파로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이 동네마다 넘쳐나면서 기존 카페 업주들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역 로컬 브랜드 '커피북는집' 이정민 대표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와 대형 카페들이 최근에 광주에 많이 생겨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무엇보다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올해 들어 문을 닫는 카페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며 "프랜차이즈 자체 규정으로 이격 거리를 두고 업체가 생겨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특수상권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매장을 늘리는 것 같아 프랜차이즈법 강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생두·원두) 수입액은 11억1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로 2년 연속 10억달러를 넘었다. 이는 5년 전의 1.7배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배에 달한다.

또한 올해 1~5월 커피 수입 금액은 4억6천333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5월까지 커피 수입 총량은 8만4천654t으로 1.4% 늘었다.

/안태호 기자



전방·일신방직 부지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화된다. 사진은 18일 임동전방·일신방직 공장터 모습. /김애리 기자

## 방직공장터 '더현대 광주' 내년 초 첫 삽

<복합쇼핑몰>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방직공장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는 내년 초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광주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 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도시 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천899억원에 대한 분담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타워의 이행보증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천899억원) 제공과 현금(3천억원) 납부로 이뤄진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심의 가결

공공기여 5천899억 분담...현물 2천899억·현금 3천억

랜드마크 특급호텔 600억 이행 보증 안전장치 마련

할 방침이다. 현금 3천억원원은 사업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 민간사업자가 광주시 5년에 걸쳐 분담하기로 했다. 향후 상생 협이나 교통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5천899억원의 85%인 5천7억여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 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희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오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타워, 상생복합시설, 주거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 보증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일반적인 개발 사업의 이행 보증 규모가 통상 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방직공장터 개발 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이다.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 방안을 강화한 셈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비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해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특급호

텔은 복합쇼핑몰 준공 전에 착공한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해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만명 시대를 열어 '꿀점도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 타워의 확실히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관 기자

### Today

도로-맨홀 단차 커 '사고 위험' 6면

인터뷰·이호성 무안군의회의장 9면

동인 선생역경감좌·육십사래 15면

###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숭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4년 6월 10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4년 9월 18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등단 작가는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